

박물관 문화



구본창 作, EWB 18, 2019

전시 소식 I

이화 창립 136주년 기념 소장품 특별전
<명품직관名品直觀>

Face to Face : Masterpieces from the Ewha Collection

전시 소식 II

2022 <거리로 나온 뮤지엄> 사업
《거리에서 통通하다》 전시 선정 및 진행

교육 소식

2022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선정 및 진행

기증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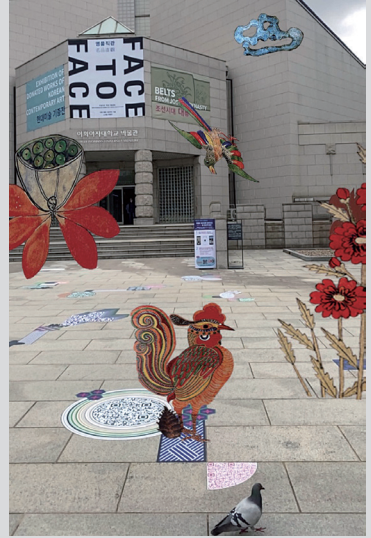


명품직관 名品直觀

Face to Face : Masterpieces from the Ewha Collection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명품 소장품들과 함께 전통미술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제작한 현대 작가들을 초청하여 《명품직관》특별전을 마련하였다. 90년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역사적 가치가 높고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들을 오랫동안 수집, 전시해왔다.

이 전시는 국보 제107호 <백자철화 포도문 향아리>를 비롯한 <백자철화 운문향아리>(보물 제645호), <고구려 평양성 축성기록 글자>(보물 제642호),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7>(보물 제352호), <기사계첩>(보물 제638호) 등의 국보·보물들과 이화가 야기하고 사랑해 온 명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느리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이다. 또한 이예승의 증강현실(AR) 작품 <동동소요 動動逍遙>, 현대적인 감각으로 청화백자를 촬영한 구본창의 <EWB 03>, 아크릴과 백동으로 제작한 정구호의 <모란잎무늬 평양반단지>, 폴리카보네이트로 전통 소반을 재해석한 하지훈의 <Ban Clear>, 전통 백자 향아리를 비누로 조각한 신미경의 <Translation- Moon Jar> 등을 통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가장 독창적이고 현대적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명품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미술사적 이야기들을 활용한 디지털 영상도 제공된다. 다양한 작품들을 직관하면서 우리 미술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그 의미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바란다.



2022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선정 및 진행

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2022년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산책> 프로그램을 4년 연속 진행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과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맞추어 진행되는 “보물이 담긴 나만의 등불 만들기”는 가족체험프로그램으로 5월 28일 2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가 있는날, 이화의 보물을 만나다”는 박물관 소장 국보·보물을 깊이 이해하고 흥미를 제공하는 문화 예술 강좌로, 6월-9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보물이 담긴 나만의 등불 만들기

일시	가족체험 교육프로그램	참여대상
5월 28일 오전10시-12시	보물이 담긴 나만의 등불 만들기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10 가족, 총 28명 참여)
5월 28일 오후 2시-4시	보물이 담긴 나만의 등불 만들기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8 가족, 총 26명 참여)

문화가 있는 날, 이화의 보물을 만나다

일시	강좌명	강사
6월 29일 오후 5시-오후 7시	문화가 있는 날, 이화의 보물을 만나다 1 조선시대 궁중 복식 이야기	이주미 동덕여자대학교 강사
7월 27일 오후 5시-오후 7시	문화가 있는 날, 이화의 보물을 만나다 2 고려시대 청자 이야기	김태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8월 31일 오후 5시-오후 7시	문화가 있는 날, 이화의 보물을 만나다 3 조선시대 백자 이야기	송인희 충남대학교 강사
9월 28일 오후 5시-오후 7시	문화가 있는 날, 이화의 보물을 만나다 4 조선시대 왕실 기록화 이야기	제송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가족체험 교육프로그램 “보물이 담긴 나만의 등불 만들기”

기증소식

2022학년도 상반기에도 본교 박물관을 기억하고 아껴주시는 분들 덕분에 귀중한 유물을 소장하게 되었다.

박물관의 운영위원을 역임하셨던 본교 스크랜튼대학 국제학과 이인표 교수는 경기도 평택에서 중증부대부터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유제 제기 일괄 40여점을 기증했다. 기증품은 모친께서 일제강점기 물자공출로부터 지켜내어 지금까지 온전한 상태로 보관하신 것이라고 한다.

이성영(본교 영어영문학과 90년 졸업) 동문은 외조모의 유품 『직금회문織錦回文』 한글 필사본을 기증했다. 『직금회문』은 중국의 전진前秦의 두도竇滔와 소야란蘇冶蘭의 고사에서 유래된 연대 미상의 고전소설이다. 필사본의 표지와 마지막 장에 ‘신미辛未 삼월三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필사 시기를 19세기 말~20세기 초(1871년 혹은 1931년)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소야란의 시詩를 도안에 써 넣은 <귀문도龜文圖>와 <직금도織錦圖>가 삽입되어 있어 한글 이본과의 연구 및 문화사적 연구에 가치있는 자료이다.

예화랑 큐레이터 이혜신(본교 철학과 석사 졸업)동문은 2019년도에 이어 부친 이원교선생의 애장품인 도예가 지당掌 박부원,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5호 고현古峴 조기정의 도자 작품 2점을 추가 기증했다. 이혜신 동문은 향후에도 전우회 회원인 부친의 컬렉션 기증을 지속하여 근현대 남도 미술 연구에 도움이 되길 바랐다.

이인표(본교 스크랜튼대학 국제학과 교수) 기증



유제 제기 일괄
높이 4.7 - 32.5cm

이성영(본교 영문과 90년 졸업) 기증



『직금회문織錦回文』
한글필사본 표지·<귀문도龜文圖>, 25.2×34.3cm

이혜신(본교 철학과 석사 졸업) 기증



지당 박부원 作 흑갈유 발
높이 6.2cm

고현 조기정 作 분청박지 철화 시명 국화문 병
높이 29.5cm